

중국과 'AI·미래차 협력'...글로벌 투자유치 시동

광주상의, 선전시 MOU...기술교류·기업매칭 기반 구축 바이두·BYD·유비테크 방문...광주 투자·협력 확대 제안 실행형 네트워크 구축...해외 진출·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광주지역 경제계가 중국 선전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단순 교류를 넘어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까지 연계되는 '실행형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면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중국 사면·선전 산업시찰을 진행하고, 현지 핵심 경제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시찰은 광주의 미래 전략 산업인 AI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찰단은 '중국 실리밸리'로 불리는 선전에서 선전상인총회와 선전시 기업서비스그룹과 각각 협약을 맺고 경제 협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협약에는 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기술 교류,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공동 세미나 개최, 상대 지역 진출 기업 지원 등이 담겼다.

단순한 우호 협력을 넘어 산업별 협업 과제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기업 방문도 이어졌다. 시찰단은 바이두를 찾아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한국 시장 진출 계획을 공유받았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미래차 국가산단과 AI 집적단지를 갖춘 광주는 최적의 투자처라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BYD 본사에서는 배터리 안전성 검증을 위한 폭파 시험을 참관하고 최신 전기차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광주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설명하며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유비테크 로보틱스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체험하며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점검했고, DJI 드론 플래그십 스토어 방문을 통해 글로벌 드론 산업 트렌드도 확인했다. 현장 중심의 체험형 시찰을 통해 미래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방문에는 민·관 협력도 힘을 보탰다. 선전시 투자촉진국과 주한중국경제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중국 사면·선전 산업시찰을 진행하고, 현지 핵심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YD 본사 방문·시찰

여기에 선전이 보유한 산업 생태계 역시 주목되는 점이다. AI, 전기차, 로보틱스 기업이 집적된 선전은 기술 개발부터 생산, 시장 적용까지 한 도시에 이뤄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광주가 추진 중인 AI 집적단지과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도시 간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기술 이전과 공동 사업 발굴도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지역 기업 입장에서 이번 협약은 의미가 적지 않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합작 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해외 진출 통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독자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의가 구축한 네트워크가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후속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AI 기반 산업 인프라를 앞세워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이 실제 투자 협의로 이어질 경우 지역 산업 구조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상의의 이번 시찰을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후속 협의와 교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약 기관과의 공동 사업을 구체화하고, 방문 기업과의 투자 논의를 이어가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시찰은 광주의 핵심 산업인 AI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전의 선도 기업들과 직접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협약 기관들과의 후속 조치를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장에서부터 안전한 오토랜드광주 만들 것”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노사합동 안전 결의대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의식 확립에서 시작합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20일 2026년 임직원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노사합동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문제제기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장과 박동철 지회장을 비롯해 기아 임직원과 사내의 협력업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는 안전결의문을 낭독 및 서명하는데 이어 무재해를 바라는 멀티미디어 퍼포먼스와 카드섹션 순서로 진행됐다.

결의문 낭독 및 제창 시간에는 사회자의 진행으로 참석자 전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기아 오토랜드광주가 2026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터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항목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20일 2026년 임직원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노사합동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 담겼다. 작업전 TBM 활동과 위험성평가를 생활화해 위험을 인지하고 발견된 사항은 개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아 10대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또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의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 노사 대표 9명이 무대에 올라 결의문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진행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는 음악과 함께 시작됐으며, 안전을 위한 임직원들의 다짐을 시각적으로 전달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행사의 마무리는 카드섹션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위험요인 찾아내고', '중대재해 예방하자', '안전한 일터 오토랜드 광주' 등의 안전 관련 메시지가 담긴 카드

를 일제히 펼치며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이번 노사합동 안전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 5월까지 단위공장, 부서, 그룹별 안전결의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노사합동 안전결의대회를 계기로 현장에서부터 안전마인드를 확립해 안전한 오토랜드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 개막전 더블라운드 포디엄 쾌거 1라운드 1·2위 이어 2라운드, 1위부터 3위까지 싹쓸이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금호SL모터스포츠팀, 준피티드 레이싱팀이 지난 18일~19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6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더블라운드에서 개막 더블라운드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는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상위 클래스이자 국내 최고 수준의 레이싱 전용 스포츠 경기 대회로 손꼽힌다. 고속 주행과 강력한 파워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치열한 경쟁은 매 시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이며 모터스포츠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18일 열린 1라운드에서는 금호SL모터스포츠팀 이창욱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팀원 투 피니시를 기록했다.

특히 이창욱 선수는 예선과 결승을 모두 석권하는 '폴 투 윈'을 달성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창욱 선수는 지난 시즌 9개 레이스 중 5승을 거두며 독보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생애 첫 '6000 클래스' 드라이버 챔피언에 오르며 차세대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금호 SL모터스포츠팀 이창욱 선수(사진 중앙), 이정우 선수(오른쪽)와 준피티드 레이싱팀 황진우 선수(왼쪽)가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2라운드 포디엄을 석권했다.

이어 19일 진행된 2라운드에서도 이창욱 선수는 다시 한 번 예선 1위와 결승 우승을 동시에 기록하며 2경기 연속 '폴 투 윈'을 달성했다.

이창욱 선수는 1·2라운드 모두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 '패스티스트 랩'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금호타이어의 기술력과 팀의 저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또 이정우 선수가 2위를 차지하며 금호SL모터스포츠팀은 2경기 연속 원투 피니시를 완성했다. 준피티드 레이싱팀의 황진우 선수가 3위를 기록하면서 금호타이어 후援팀이 1~3위를 모두 석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승기 기자 sky@

삼성전자 'AI TV 위크' 성료...신제품 소개

삼성전자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6년형 TV·오디오 신제품 체험 행사 '삼성 인공지능(AI) TV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 소비자들과 B2B 거래선 등 다양한 방문객이 참여해 2026년형 TV와 오디오 신제품을 직접 체험했다.

신제품 체험존은 마이크로 RGB, 무비, 아트·디자인, 스포츠, 게임 등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각 존에서는 전문 프로모터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품의 주요 기능은 물론, 삼

성 TV만의 통합 AI 플랫폼 'AI 비전 컴패니언'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AI TV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참여형 스태프 투어와 럭키드로우,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의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상담 공간인 신혼 상담소를 마련해 TV를 비롯한 신혼가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삼성 강남을 방문한 고객은 "2026년 마이크로 RGB TV를 구매하고 싶어 출시 사전 알릴 신청을 했는데, 실물이 궁금해서 현안부터 강남까지 2시간 걸려 찾아왔



삼성 AI TV 위크 방문객들이 영화를 시청하며 삼성 TV만의 통합 AI 플랫폼 '비전 AI 컴패니언'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다"며 "체험존을 둘러보면서 신규 AI 기능들에 대해 직접 설명 들어보니 편리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평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소연 부사장은 "이번 행사는 TV·오디오 신제품 라인업

과 AI TV 기술을 보다 많은 고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AI TV 대중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 맞춤형 AI TV 체험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1페이지 자소서' 도입...현대차, 하계 인턴 모집

현대자동차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재학생 대상 채용전환형 인턴(하계인턴)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연구개발,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총 4개 분야 36개다. 올해 8월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학·석사)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인턴으로 선발된 인원은 7월부터 3주간 실습 기간을 거친다. 실습전형 후 최종 합격하면 올해 하반기(7~12월) 중 정규직

으로 입사한다.

현대차는 올해 인턴심에서 처음으로 '1페이지 자기소개서'를 도입한다.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1페이지 분량 내에서 작성하면 된다.

인턴 지원자는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지원자 개인의 차별화된 역량에 집중해 채용 직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